강한 듯이 보이는 저분들 마음속은...

김귀선(엘리사벳)/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김 00(요셉)씨,
96년 4월 당시 그는 44세의 폐암 환자였고,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조모임 때 봉사자들로부터 접근이 힘든 환자이고 부인도 봉사자들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완벽한 환자와 보호자가 되려하였고 봉사자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한 부인에게 마침 집이 같은 방향이라 심부름이나 교통편을 제공하겠노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 부탁하겠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강한 듯이 보이려는 저분들의 마음속은 더 여리고 외로울 텐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배 봉사자인 사라씨와 짝이 되어 계속 병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언제나 신문이나 책장을 찢어 읽고(힘이드시니까) 있는 환자, 잠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부인 루시아씨, 여전히 방문을 거부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어느날 환자에게 "선생님 지금 가장 불편하신 곳이 어디세요?" 하고 정중히 물으니 온몸 특히 어깨와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이 저리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주사 바늘이 꽂힌 곳을 확인하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주물러 주니 몸을 맡기기를 어려워하던 환자는 차츰 긴장을 풀고 시원해 하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경계하는 듯한 부인도 차츰 우리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가면 남편이 봉사자님들 언제 오냐며 기다린다고 했고, '어디 ~ 좀 주물러 주세요' 하며 부탁도 했다. 차츰 가까워진 우리는 악수하며 인사하자고 했고, 방문하면 으레 악수하며 인사했고 병실을 나올 때도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부인은 우리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잠깐 볼일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자와 만나는 동안 다른 봉사자님께서는 교리를 준비시켜서 96년 5월 27일 남궁 예레미아 봉사자님을 대부로 보례, 견진, 병자 성사를 요셉이라는 본명으로 받으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자와 부인은 충만한 은총으로 고통중에서도 밝고 행복해 했습니다.

어느날 부인은 집에 다니러 갔고 환자 혼자 6월의 푸르름이 한창인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짝 사라씨와 함께 우리도 조용히 침상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리고 철없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부인과 연애 결혼한 이야기며 발병하여 이곳 호스피스병동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 결핵으로 진단받고 암인 줄을 늦게 알았던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통증이 많이 조절되었으나, 하체가 전기가 오듯이 저리다고 하시며 조금 더 좋아져 집에 한 번 다녀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부인은 환자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병하였고, 때론 우리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바깥이나 집안 일을 보고 오기도 했지만 다른 식구와 교대없이 늘 혼자 남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만 갔고, 부인은 봉사자실로 찾아와 환자의 나빠진 병세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고 위로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젊고 다정한 부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고 아내에게 남편과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환자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부인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뽀뽀해 드리라고 했더니, 부인은 밤에 가만히 뽀~해 드린다며 순간 행복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수녀님, 간호사, 봉사자 모두 함께 노래를 불러 드렸는데, 환자는 '찬찬찬', '남행열차'를 신청했고 우리들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도 잠시나마 즐거워 하셨습니다. (뒷날 부인은 그날이 남편이 즐거워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기억하며 이야기 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에 들어서니 부인이 환자에게 누가 왔는지 보라고 하자 환자는 힘들게 눈을 뜨고 바라보더니, 알아보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평소처럼 어깨,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부인은 몸을 돌려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혼수상태에 빠지셨다는데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 까칠해진 부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고 다독여 주며 부인을 환자곁에 오게하여 남편의 손을 꼭 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환자는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더니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해" 하시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인도 "이 고비만 잘 넘기도록 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 하며 오열했습니다. 식사도 못

하고 너무 지친 부인을 옆보호자에게 부탁하여 함께 식사하러 보내고 우리는 환자곁에서 성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면서 헛소리를 하던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 다음날 임종방으로 옮겨졌고 이틀 후 임종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 왔습니다. 환자의 본당 구역장에게 연락하여 임종하셨음을 알리고 많은 기도와 보살핌을 부탁드렸습니다. 장지는 용인 묘지였고, 많은 봉사자님들이 동행하셨습니다.

부인은 침착하게 두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부인(루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다며 흐느끼는 루시아를 힘들 때 서로 연락하며 지내자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한 번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와 찾아갔더니 안방에 남편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루시아씨는 "여보, 봉사자님 왔어요" 하며 울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신부님, 수녀님, 간호사님 그리고 봉사자님들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하며 남편과의 병원에서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왔는데, 둘다 건강하고 밝아보여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피자집에 갔던 때를 기억하며 이야기 했고, 루시아씨도 남편과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했다며 지난 일을 회상했습니다. 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피자집으로 갔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시키며 즐거워하는데 루시아씨는 목이 메여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성당에도 잘 나가고 그러면 다음에 또 피자먹자고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그후로 루시아씨는 사별 가족 모임에도 나왔고, 나는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저 루시아예요" 하는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또 요셉씨 생각이 났군요" 하면 흐느끼기 시작한다. 같이 울어주고 달래며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울음이 그치면 아이들 이야기며 혼자되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 매점에서 일하고 있고, 많이 안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봉사자님들처럼 그렇게 봉사하며 살래요" 하는 목소리가 밝습니다. "그래요, 루시아씨는 정말 좋은 봉사 하실거에요. 건강하게 우리 열심히 삽시다." 답하는 나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요셉씨의 영혼이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빕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해 주십시오.